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기고



죽지 않는 길(不死之道)

〈불본행집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증생들을 위해 법의 수레를 굴리기로 결심하고 허말라야 산을 내려오는 도중에 우파카라는 바라문을 처음 만나게 된다. 우파카는 부처님의 스승이 누구이며, 어떤 것을 배우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하며 '바라나시로 가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사(不死)의 복을 올리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불사의 복소리를 통해 잡자는 증생들의 의식을 깨우겠다는 선언은 부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어떤 것이 죽지 않는 혹은 사라지지 않는 불사의 복이 된단 말인가? 원래 불사란 말은 다른 말로 감로(甘露)로 번역되기도 한다. 범어로는 amrita(암리타)이며, 이것을 의역하면 죽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사 혹은 하늘의 술이란 의미의 천주(天酒)가 된다. 감로란 말은 한자어를 풀이하면 단 이슬이란 의미이며, 천신들이 마시는 음료를 지칭한다. 원래는 부처님의 교법이 증생들을 잘 제도할 수 있다는 데서 연유된 말이다. 따라서 '불사의 복'이 '사분술'이나 '오분술', 기타 '방광대장엄경' 등에서는 '감로의 복'이

제시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들이 불안하거나 불안족스러운 것은 인연으로 잠시 화합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변하지 않는 나라고 집착하거나 그것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으며, 더구나 시간이 소유와 욕망, 영속성에 대한 인간들의 바람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낱알이 싹피고 보고 진정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상유타니카야〉 권8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나온다. "부처님, 불사라 하는데 불사란 어떠한 것이고, 거기에 이르는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러한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수행승이며, 탐욕이 소멸하고, 성냄이 소멸하고,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것을 불사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덟 가지의 성스러운 길이야말로 불사에 이르는 길이다"라 대답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들이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이제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영

삼독심이 죽음에 이르는 요인 8정도로 정신적 不死의 길을

라 표현되고 있다.

세상에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죽음이다. 인간이란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절망과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된다. 인간의 이러한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20여년전부터 죽음에 대해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생사학회, 죽음준비교육회, 사별과 비탄학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사학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죽음과 관련하여 의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죽음을 회피할 수 없다. 생긴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며, 영원한 삶을 모색한다. 다른 종이나 생명체와 달리 인간은 죽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서양에서 말하는 부활이나 중국의 신선술, 진시황제의 불로초 등이 그러한 인간의 노력을 웅변하고 있다. 많은 종교가들 역시 독자적인 해답을

원히 살고 싶어 하며, 죽음 앞에 서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육신의 죽음이 문제라 아니라 정신적 죽음이야말로 더욱 심각한 것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살아도 송장과 같은 삶, 아니면 살아도 죽음보다 못한 삶을 일깨워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 그리고 그로인해 야기되는 올바른 판단력의 상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정신적 죽음으로 내모는 요인들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라면 이러한 요인들을 치우쳐 정신적으로 죽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8정도의 것이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세기(정법), 올바른 집중이 그것이다. 이 8정도를 다시 분류하면 견해와 사유는 지혜에 해당하며, 언어부터 정진까지의 계율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기와 집중은 선정에 해당한다. 다시 계율은 탐욕을 조절해 주며, 선정은 성냄을 조절해주고, 지혜는 어리석음을 치우쳐 준다는 점에서 8정도가 정신적인 불사의 길이 되는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인 관악구 봉천 6동에 자리 잡은 승덕정사. 태고종 원로의원 덕화스님(71세)이 꼬박 35년간 포교에 전념해온 곳이다. 지역특성대로 사람들이 오가는 작은 골목길 바로 옆에 있다. 직업 군인의 길을 접고 67년 판자집들이 늘어난 황무지에 단돈 450원을 들여 조그만 움막법당을 만들면서 승덕정사는 지역주민들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다.

시간만 나면 덕화스님은 사람의 이곳 저 곳을 돌고 댈다. 기자가 찾아가는 때도 빗자루를 들고 계셨다.

"부처님 도량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것이 부처님을 잘 모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기도처가 깨끗하면 찾아오는 신도들의 마음도 맑아지지 않겠어요?"

사람에 신도와 공양주 보살도 계산대 노스님께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주위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부처님 법은 승속을 막론하고 실천해야 빛이 납니다. 나 자신부터 실천해야 신도들도 따라하지요. 그래야 생활불교가 이뤄집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만 살면 모두가 편안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기도도 정진도 남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 자신도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은 나, 내 가족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만 편안하다고 행복하다 할 수 없습니다. 주위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내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35년간 신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남이 보든 안보든 육바라 밑을 실천해왔다. 그것을 위해 스님은 자비봉사를 위해 항상 '그늘'을 지향해 왔다. 지역주민 중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돕는 일부터 시작한다. 워낙 소리 소문 없이 비밀스럽게 행을 하다보니 정작 도움 받은 사람들도 누가 자신을 도왔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한다. 30여년에 걸쳐 자비행을 실천하다보니 어느덧 소문이 퍼져 지역과 주민들이 국가에 상을 상신했다. 그래서 94년 스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하지만 "불자들이 어렵게 모아서 사찰에 내는 보시금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온 돈은 먹고 살만큼 남기고 다시 어려운 대중들에게 돌려줬을 뿐인 때 공연히 알려져 상까지 받아 부끄럽다."며 지금도 상받은 것에 대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스님의 무욕생활은 사찰운영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법당 등값은 하루100원, 돈이 많으나 적으나 사회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도비는 초, 향 값을 포함 월 15,000원이다. 신도들은 더도 덜도 낼 수 없다. 이 같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사찰의 규모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땅 한평, 집 한칸 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나 잘 지켜 후세 스님들에게 물려지면 그만이지요. 시냇물은 내 돈이 아니에요. 사찰은 자꾸 베풀어야 합니다.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화는 주인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의 산물이지요. 재화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 갖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요. 나의 재화가 남의 재화를 가져 온 것을 안다면 반드시 베풀게 될텐데 그것을 몰라요. 세상에 나올 때 맨손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자들은



61년 덕암스님 은사로 출가... 사회봉사 진력

덕화스님은?

태고종 원로의원인 덕화스님은 평생 봉천동에서 포교에 전념해온 노스님이다. 193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스님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 61년 5·16군사 쿠데타 때 제대했다.

61년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서 덕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67년 봉천동에 승덕정사를 창건했다. 스님은 80년 동국대 불교대학을 수료하고, 82

년 서울 경찰청 경승, 87년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98년 태고종 중앙사정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태고종 원로회의 의원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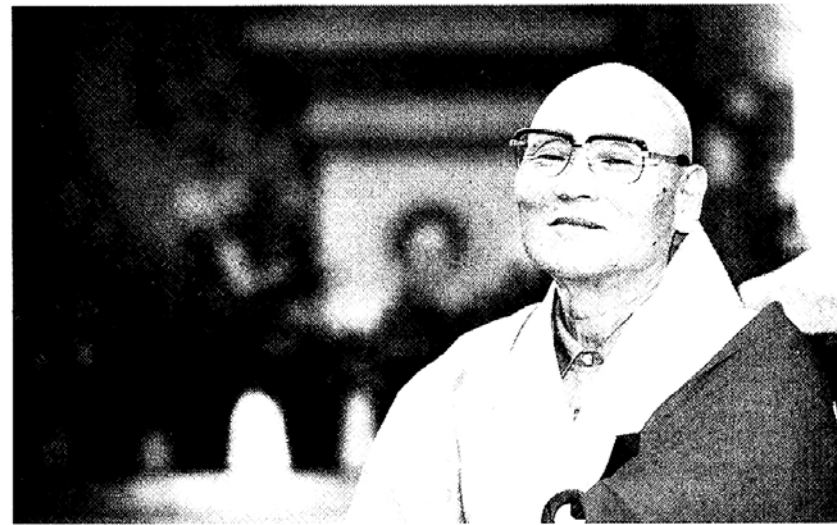
사회봉사활동에 진력해온 스님은 지역 스님들과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운데다, 스님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주민들의 추천으로 90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94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상내지 않고 베푸는 마음 세상을 맑게하는 힘



가까이서 뵈 큰스님

덕화스님 (서울 승덕정사 주지)



◀태고종 원로의원인 덕화스님은 승속을 막론하고 육바라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 오히려 병을 얻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그 많은 재화를 써 보지도 못하고 하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재화가 그리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실만한 사람도 상대적인 비교로 괴로워하고 욕심을 냅니다. 모두 쓸데없는 욕심이지요. 욕심을 가지면 안됩니다. 최대한 베풀어야

됩니다. 또 재화가 그리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실만한 사람도 상대적인 비교로 괴로워하고 욕심을 냅니다. 모두 쓸데없는 욕심이지요. 욕심을 가지면 안됩니다. 최대한 베풀어야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일괄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수출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양성식품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한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팔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치면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또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매달리는 주수에... 마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뒷맛이 쓰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감성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승복 법복 인네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 |                   |                            |                   |
|-------------------|----------------------------|-------------------|
|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 적삼, 바지 : ₩140,000          | 동방, 바지 : ₩160,000 |
|                   | 두루막 : ₩140,000             |                   |
|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 적삼, 바지 : ₩130,000          | 동방, 바지 : ₩150,000 |
|                   | 두루막 : ₩130,000             |                   |
| 3. 누비 (면승 100%)   | 적삼, 바지 : ₩220,000          | 동방, 바지 : ₩240,000 |
|                   | 두루막 : ₩200,000             |                   |
| 4. 누비 (혼방)        | 적삼, 바지 : ₩170,000          | 동방, 바지 : ₩190,000 |
|                   | 두루막 : ₩170,000             |                   |
| 5. 법복 (회색, 밤색)    | 쪼끼, 바지 : ₩60,000 ~ ₩65,000 |                   |
| 6. 장삼 (모직)        | ₩200,000 ~ ₩250,000        |                   |

※ 기사 주문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대구 지아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4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